제주예술인복지센터 이름만 있고 청사진 부재

문예재단 작년 조직개편 기구표에 센터 명시했으나 계약직 인력 달랑 1명 뿐 올해 복지 실태 조사 예정 운영 방향 계획 수립은 실종

제주예술인복지센터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름뿐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 개편을 통해 예술인복지센터를 기구표에 담았지만 지금껏 정규직 전담 인력 한 명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예재단 예술인복지센터는 예술지원팀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문화재단의 설치 움직임이 잇따르는 속에 제주에서도 그 같은 흐름을 따랐지만 후속 조치에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제주예술인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취지로 예술인 복지 사업을 벌이고 예술인복지센터를 뒀지만 올해 예술인복지센터 예산은 3억원이다. 당초 문예재단은 2021년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제주도에 제출했는데 최종 심사 결과 해당 출연금이 3억으로 줄면서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사업(2억)은 빠졌다. 문예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예술인 복지 사업 계획에는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1억8000만원, 1인 200만원 총 90명 지원) ▷제주의료원과 업무 협약한 의료비 지원 사업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사업(1200만원) ▷제주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 사업(2400만원) ▷예술인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교육(1000만원) ▷예술인활동증명 대행 사업이 들어 있다.

전담 인력 배치도 뒷전이다. 지난 4월 계약직 1명을 채용해 예술인활동증명 대행 사업을 위주로 예술인 복지 관련 민원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는 게 전부다. 2020년 기준 부산, 경기, 경남, 대구, 전남, 전북 등 광역예술인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근무 인원이 많게는 14명(부산)에서 적게는 4명(경남)에 이른다.

이번 문예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 예산이 2020년 5500만원에 비해 6배가량 늘었다고 하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유형을 본뜬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빼면 달라진 게 없다. 이는 타 지역 광역·기초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예술인 복지센터를 만들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점과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술인복지사업이 절실한 시점"(이승택 이사장)이라면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아낼 예술인복지센터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문예재단 측은 올해 제주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제주 실정에 맞는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방향 수립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미끄러짐의 파동 젊은 작가 동력으로

청년 작가 6인 공동 기획 아트랩와산 '공(생)성(장)' 작업의 긍정 에너지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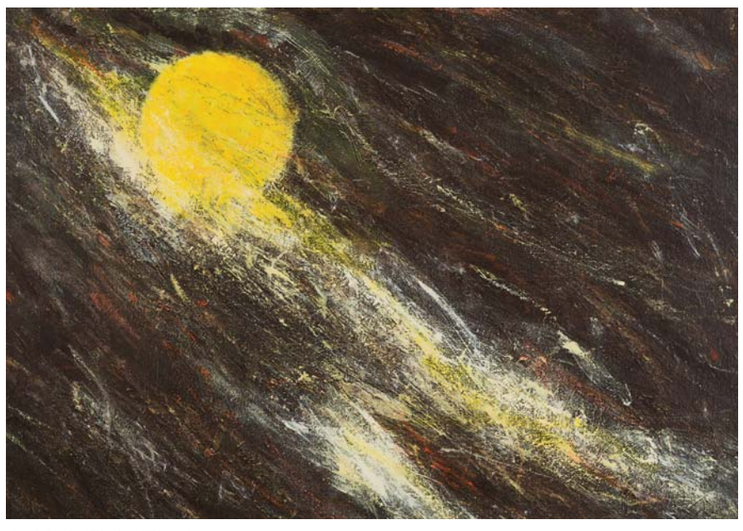
그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 디뎠을 때 창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원했다. 졸업 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작업을 중단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봤기 때문이다.

6명의 작가들은 그 에너지를 밖이 아닌 내부에서 찾았다.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주기 전에 스스로 움직이며 그 계기를 끌어내자는 거였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파장을 모아 하나의 큰 파장으로 만들어 '공생'과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기획전의 취지는 그렇게 나왔다. '공생', '성장'에서 머리글자를 따서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마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아트랩와산(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566-27 406동, 407동)에서 펼치는 '공성'전이다.

참여 작가는 김선영, 김남훈, 오지우, 라군선, 황준용, 문여목이다. 제주대 미술학과 졸업 예정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들로 함께 뭉쳐 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동기를 얻기 위해 만났다.

이들은 '미끄럼틀'과 '놀이터'를 전시 주제로 정했다. 개별 작업과 공동 설치 작품으로 해당 주제를 구현하게 된다.

놀이터는 밝은 에너지의 파장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작가들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쌓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화의 장이라는 의미를 시각예술로 형상화할 예정이다.


오지우의 '달의 파장 #3'

미끄럼틀 이미지는 작가 6인의 릴레이 작업으로 표현된다. 한 작가가 만든 미끄럼틀 파동 위로 또 다른 작가의 미끄러짐이 담기고, 이는 다시 새로운 물결이 되어 퍼져가는 방식이다. 미끄럼틀을 중심으로 조성된 파장의 이미지는 놀이터로 연결된다. 진선희기자

6월 제주 산야는 산수국 피는 계절

제주산수국연합회 품평회 이달 5~12일 부성농원서

1월 한란, 3월 벚꽃, 4월이 새우란의 계절이라면 6월에는 산수국이 있다. 제주 중산간 등에 자생하는 산수국의 가치를 알리려는 단체 중 한 곳인 제주산수국연합회가 산수국이 만개하는 달을 맞아 '산수국 품평회'를 열고 야생화의 향기를 나눈다.

우리가 제주의 도로변에서 흔히 마주하는 수국은 양수국이다. 근래 열리는 수국 축제도 양수국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제주산수국연합회는 이 땅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산수국에 주목했다. 양수국에 익숙한

이들에게 꺾꽂이로 증식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집에서 직접 가꾼 산수국을 선보인다. 형태와 색깔이 매우 다양하고 품종이 우수한 산수국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석우 회장은 "제주도민들이 산수국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는 점이 안타까워 올해로 두 번째 품평회를 열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별도로 전시장을 빌리지 않고 농원에서 전시를 개최한다"고 했다.

산수국 품평회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부성농원(제주시 오등동 912-21)에서 열린다. 회원 18명이 정성스럽게 가꾼 200여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5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ᄀᆞᆯ멘. "남ᄌᆞ 아은 얼른 여ᄌᆞ 아을 일려 세우멍 '나 손 심엉 일어삽서. 이디 오래 시민 얼엉 죽음네께. 자 ᄉᆞᆯᄉᆞᆯ, ᄉᆞᆯᄉᆞᆯ.' ᄒᆞ멍 여ᄌᆞ 아으를 일려세완 웅덩이서 나왓주."

ᄋᆞ멩이 ᄀᆞᆯ멘, "하르바지, 경ᄒᆞ민 가냐귀가 남ᄌᆞ 아을 이디레 ᄃᆞᆯ안 왕 아을 구ᄒᆞ젠 ᄒᆞᆫ건게양."

하르바지 ᄀᆞᆯ멘. "기여게. 가냐귀가 여ᄌᆞ 아으가 푸더젼 시난 그 질로 남ᄌᆞ 아을 그 ᄀᆞᄁᆞ장 ᄃᆞᆯ안 왓주. ᄎᆞᆷ말로 가냐귄 영리ᄒᆞᆫ게. 은혜를 받으민 그 공을 갚은덴 ᄒᆞ연게 맞는 말 닮다."

ᄌᆞᆷ네 ᄀᆞᆯ앐져, "와, 경ᄒᆞ민 가냐귄 어디레 가불엇수과?"

*** 제주어 풀이**

*남ᄌᆞ 아은 : 남자 아이는. *여ᄌᆞ 아을 : 여자 아이를.
*일리다(일르다) : <움직> 주로 누웠거나 앉아 있는 사람을 일어서게하다. 땅 속에 박힌 암반 따위를 지렛대 따위로 일으켜내다.
*일려 세우멍 : 일으켜 세우면서. *심엉 일어삽서 : 잡아서 일어서요.
*일려세완 : 일으켜 세우면서. *이디레 ᄃᆞᆯ왕 왕 : 이곳으로 데려와서.
*아을 구ᄒᆞ젠 ᄒᆞᆫ건게양 :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 ᄀᆞᄁᆞ장 ᄃᆞᆯ안 왓주 : 그곳 까지 데리고 왔지.
*맞는 말 닮다 : 맞는 얘기 같다.
*어디레 가불엇수과? : 어디로 가버렸나요?

고재만 화백

문화가 쪽지

포스나인 '겹의 시간 Ⅱ' 전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갤러리 ICC 제주가 디지털 기술을 녹여낸 사진 작품으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된 Phos9(포스나인)의 '겹의 시간 Ⅱ'이다.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엔 다중노출, 장노출 등 카메라의 다양한 기법과 디지털 보정 등을 이용한 작품이 나왔다. 풍경과 인물, 사물과 인물이 교차하는 다중노출촬영 등 카메라의 갖가지 기능을 십분 활용했다. 포스나인의 송정훈 회장은 "작품이 주는 감흥보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준비된 전시"라며 "회원들이 시도하고 공부하는 모습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라보 전시 '행복의 조건'

기성 작가들이 '어린이 작가'와 만나는 이색 콜라보 전시 '행복의 조건'이 제주와 전주에서 열린다.

오감로니 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여행 작가, 드로잉 작가, 한국화가, 서양화가, 공예가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이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을 주제로 '나만의 파랑새'를 찾는 여정을 작품에 담아냈다. 아이들은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어른이 된 작가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 전시는 지난달 29일 문예회관에서 시작돼 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전주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6월 24~30일 전시가 예정됐다.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